‘잡초밭’ 된 5·18 매화동산

국민 518명 참여해 조성 … 뽑히고 잘리고 관리 엉망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조성된 국립 5·18민주묘지 내 ‘매화동산’이 관리 부실로 무성한 잡초밭으로 변하고 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30여m 떨어진 4천290㎡의 매화동산이 조성된 지 1년 만에 풀밭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11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매화동산은 지난해 2월 28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추모 및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전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학생·주부·회사원·공무원 등 518명이 매실나무를 심으면서 조성됐다.

당시 참가자들은 묘목을 심은 뒤 매실나무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나 가족사진, 희망 카드 등을 매달았다.

그러나 조성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화동산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다. 높이 50㎝~1m가량의 잡초가 무성한 ‘풀숲’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매실나무의 경우 잘리고 부러진 채 방치돼 국립 5·18 민주묘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 각지의 국민이 참여해 조성한 국립 5·18민주묘지 매화동산, 관리가 부실해 잡초밭으로 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또 이름표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매실나무가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묘목 보호와 잡초 제거를 위해 묘목 밑 동에 덧씌운 가로 50㎝, 세로 50㎝ 크기의 검은색 부직포도 상당 부분 훼손돼 참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참배객 이모(28·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5·18 민주화운동의 참뜻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이 심은 나무를 방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훼손된 천조각과 이름표들이 널려있어 쓰레기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퇴비를 한 차례 주고 잡초 제거 작업을 했다. 올해에는 식목일 전후로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조선대 이사 2명 옛 경영진측 인사 선임 통보

교수·학생 등 강력 반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조선대 이사 중 미선임 이사 2명을 최종 선임·통보한 것과 관련, 조선대 교수와 학생 등 구성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날 오후 법인의 미선임 이사 2명을 주광일·정순영씨로 최종 선임해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적 정이사 쟁취를 위한 범조선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긴급회의를 갖고 주광일·정순영씨의 사퇴와 지난달 선임된 故 박철웅 조선대총장의 장녀 박성숙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비리로 인해 물러난 옛 경영진측이 추천한 주광일·정순영·박성숙씨 등 3명이 이사로서 조선대 운영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교과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선임권은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이사선임권을 행사해 옛 경영진이 추천한 인사를 이사로 임명함으로써 비리집단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학 구성원이 법인 정상화를 원했던 것은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만들고자 함이었지 불필요하고 위법한 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서 “미선임 선임통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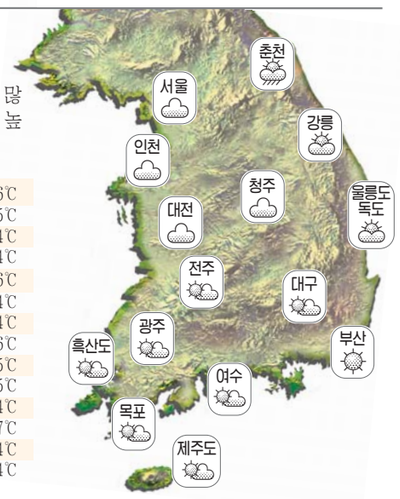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8분 해짐 18시 37분 / 달뜸 04시 41분 달짐 15시 24분

걷다보면 땀방울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다.

광 주	맑은 뒤 흐림	4/16℃
목 포	맑은 뒤 흐림	5/15℃
여 수	맑은 뒤 흐림	6/14℃
완 도	맑은 뒤 흐림	4/14℃
구 례	맑은 뒤 흐림	1/16℃
해 남	맑은 뒤 흐림	3/14℃
장 흥	맑은 뒤 흐림	3/14℃
고 흥	맑은 뒤 흐림	4/16℃
순 천	맑은 뒤 흐림	3/15℃
영 광	맑은 뒤 흐림	4/15℃
진 도	맑은 뒤 흐림	4/14℃
전 주	맑은 뒤 흐림	3/17℃
남 원	맑은 뒤 흐림	-1/14℃
흑산도	맑은 뒤 흐림	5/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남서~서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남서~서	2.0~3.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남서~서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2.0~3.0m
먼바다	남서~서	2.0~3.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12:40	05:27
	--:--	18:06
여수	07:46	01:11
	19:40	13:4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날 씨						
최저/최고	4/16	6/17	10/12	4/9	6/12	2/11

김주열 열사 장례식 50년만에 치른다

4월 11일 남원·마산서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회(대표 백남해 신부)는 11일 “다음달 11일 마산과 남원에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1943~1960년) 열사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밝혔다.

장례식은 김 열사가 세상을 떠난 지 50년만에 거행되는 것이다.

추모사업회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15 의거 50주년을 맞아 거행하는 이번 장례식은 50년의 원을 푸는 범국민장으로 진행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례식은 50년전에 김주열 열사의 시신을 인양했던 마산 중앙부두에서 발인과 시신 운구, 초혼제 등으로 시작된다.

이어 옛 마산도립병원, 3·15탑, 남성동파출소, 창동, 북마산파출소, 용마고등학교 등 당시 시위 현장을 돌며 노제를 지내고, 꽃상여와 만장 등을 들고 행진을 벌인다.

또 김주열 열사의 묘소가 있는 전북 남원으로 차량 이동한 뒤 제를 지내는 등 추모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장례식에는 김주열 열사 유가족 10여명과 전국의 민주 인사,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추모사업회는 내다봤다.

김주열 열사는 1960년 3월 15일 자유당 독재정권과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실종됐다가 27일만인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교사 71% “매관매직 전국적 현상”

감사제도 개선 등 시급

서울지역에서 잇따라 터진 교육비리와 관련, 평교사 10명 중 7명은 ‘교육비리는 전국적으로 만연해있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평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리’ 관련 설문조사를 해 11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한 장학사들의 ‘매관매직’ 사건에 대해 70.8%(중복응답)가 ‘전국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성적 비리 34.1% ▲근무평정 비리 68.3% ▲보직교사 임용 학내 인사 비리 62.7% ▲수학여행 리베이트 수수 58.4% ▲비정규직 직원 채용 관련 상납 요구 55.7%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 수수 57.6% ▲교과서·부교재·사설모의고사 채택료 수수 44.7% 등이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비리가 학교현장에 광범하게 퍼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감사제도 개선, 내부고발자 보호 장치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70여 단체 참여 ‘광주시 자원봉사박람회’

12·13일 DJ센터

‘2010년 광주시 자원봉사박람회’가 12일부터 이틀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

광주시 및 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광주지역 70여 개의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2천여명이 참여해 다문화가정 전통혼례식, 자원봉사자 한마당, 자원봉사 그림 그리기·글쓰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시민 즉석 장기자랑과 아이티난민돕기 자장면 나누기, 적십자 밥차 운영과 함께 장애 및 노인체험, 휠체어 면허시험장 체험, 자원봉사 마인드 맵 만들기, 스마일 포토제닉, 내 건강 바로 알기 및 건강검사 등 11개의 체험 이벤트도 마련됐다.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와 광주 시청 자미디어센터 미디어봉사단은 장애인 안내 등을 위해 행사 기간 중 직원 163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기관이 50여 개의 다양한 부스와 나눔장터 등을 설치·운영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